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Group Forgiveness Counselling Program on the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저자 (Authors)

김정남, 이은영
Chungnam Kim, Eun Yeong Yi

출처 (Source)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2012.1, 32-43 (12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1), 2012.1, 32-43 (1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877501

APA Style

김정남, 이은영 (2012).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32-43.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3
2016/07/05 15: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6권 제1호(2012년 1월)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2;16(1):32-43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 정 남[1] · 이 은 영[2]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1], 대구태전초등학교 보건교사[2]

= Abstract =

Effects of Group Forgiveness Counselling Program on the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ungnam Kim[1] · Eun Yeong Yi[2]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rofessor[1]
Taeje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2]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s of group forgiveness counselling program on the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Methods: From March 2nd to May 24th of 2011, eighteen 6th grade students were participated at an elementary school in D city and were divided into an education group (9 students) and a non education group (9 students). Group forgiveness education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ducation group for 8 weeks and questionnaire survey about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carried out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he follow-up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ur weeks later.

Results: After the application of group forgiveness education program education group showed a lower aggression score than the non education group ($p<0.05$). Howev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cores increased in the both groups ($p<0.05$). Four weeks later the education group showed a lower aggression score and a hig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 than the non education group ($p<0.05$).

Conclus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group forgiveness counselling program is a very useful intervention in the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ulting in a decreased aggression and increas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develop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program of the group forgiveness counselling.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 forgiveness education program, agg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이 논문은 2010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연구지원비로 수행됨
교신저자: 김정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53-580-3909, 팩스번호: 053-580-3916, E-mail: jnk584@kmu.ac.kr
원고접수: 2011년 6월 21일, 원고채택: 2011년 1월 11일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63%가 초등학교 때 최초의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2008년도의 56.1%에 비해 6%의 증가를 보여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중, 고등학생처럼 어느 한정된 집단의 문제가 아니며 갈수록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면에서 빵 셔틀, 괴롭힘, 사이버폭력, 성폭력, 왕따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5.1%, 42%, 41.7%, 22.7%,16.9%로 조사 되어(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0) 학교폭력 불감증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증가하는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다툼을 넘어서 초, 중, 고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까지 발생하면서 비행과 관련된 범죄요소중의 하나로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특징은 지속성이 있어 성인기까지 연결될 수 있고(Farringoton, 1989),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자신, 타인을 괴롭히며 특별한 교육이나 대책이 없는 한 범죄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이정희, 2002) 청소년기의 비행, 성인기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학교는 또래 집단들과 함께 정해진 규칙에 의거해 많은 일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 중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아동들은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툼, 갈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양상을 보일수도 있다. 학교폭력의 71.6%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0) 이러한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래에 의해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은 또래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 편파적인데 반해 인기 있는 아동은 또래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하고(Cassidy & Asher, 1994),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생각하기 전 충동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권선귀, 2004)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 관계를 방해하고 아동의 자신감, 신뢰감을 떨어뜨려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 하게 된다(김귀연, 2004).

이렇듯 공격성을 표출하는 학생들은 효율적인 대인관계가 힘들게 되어 또래와의 대인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진다. 아동기의 대인관계는 가족에서 또래로 대상이 확대되며 대인관계에서의 부당한 피해나 상처를 받을시 부정적 감정과 분노를 겪게 되고(Spielberger, 1980), 이 시기의 억압되고 미해결된 분노는 다양한 정신. 행동 장애를 수반하게 됨을(Enright와 Fitzgibbons, 2002) 볼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등학교부터의 공격성 예방, 적절한 표출법, 이와 관련된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공격성을 예방, 조절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공격성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용서 교육은 잠재적 공격성을 가진 학생이나 공격성이 표출되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공격성 예방, 적절한 표출, 그와 관련한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여 진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격성 관련 문제행동들은 단기적, 일회적 교육이나 중재로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인간관계 갈등 및 상처를 치유하며 예방교육 차원의 용서 교육이 개인의 인격 성장 발달,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용서상담과 관련된 국외 연구로는 낙태한 사람(Coyle와 Enright, 1997), 애정결핍대학생(Al-Mabuk, 1996), 경계선 성격장애자(Fisher, 1985), 아동학대나 방치당한 사람(Bergin, 1998), 성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 분노문제(Brandsma, 1982), 청년후기와 장년기의 개인 간 용서변인에 대한 연구(Skoviak 등, 1995),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노인 여성(Hebl과 Enright, 1993),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과 용서와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의 관계(Freedman과 Knupp, 2003), 장기간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용서의 증진 요인으로 정서 반응과 감정의 공감에 관한 연구(Fincham 등, 2002) 등이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용서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체적으로 용서가 심리, 신체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서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용서 교육 효과를 검증한 정지윤(2005), 이현희(2005), 김광수와 하요상(2006), 최만복(2007), 고요나(2008), 이범수(2009), 한영미(2009), 용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송옥선(2009), 청소년 대상 연구로 한상규(2006), 김옥배(2006), 장화수(2003), 박인희(2001), 이은경(2010), 한경수(2007), 이선복(2008), 장수진(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 역시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 정서 반응을 증가 시켜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용서교육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다른 영역의 연구에 비해 그 숫자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춘기 진입과 함께 신체, 정서적 변화를 겪으며 혼돈상태를 겪을 수 있고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의 중간선상에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용서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해 공격성을 조절 하고 인간의 보편성과 이타주의를 치료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용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3. 연구의 가설

가설1.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공격성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2.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3. 집단용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4주 후에도 공격성 점수가 낮게 유지될 것이다.

가설4. 집단용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4주후에도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유지될 것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12주 동안 D시 북구 소재 1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을 교육군, 비교육군으로 나누어 실시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6학년 4개 반 아동 중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 9명을 교육군, 나머지 학생 중 무선할당방식으로 9명의 학생을 비교육군으로 선정해 연구의 목적 및 연구절차를 설명하고 두 집단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공격성, 대인관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군 학생에게 총 8차시의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직후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 점수를 평가했으며 1개월 후 학습한 내용의 80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를 망각한다는 에빙하우스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용서교육 프로그램 실시 1개월 후 교육군과 비교육군 사이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 점수를 재평가 하였다. 또한 양적결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회기 경험 보고서, 대상자 관찰내용을 포함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

Enright 등(1991)의 '개인적으로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갖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 이라는 조작적 용서 개념을 기반으로 제작된 4수준 20단계의 용서 모형을 기반으로 김광수(1999)가 개발한 용서교육 프로그램 및 장수진(2009), 최만복(2007)이 사용한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한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간호학 교수 1인,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 박사 수료 현직 교사 1인, 상담심리석사 출신의 교직경력 10년 이상 교사 1인, 초등학교 6학년 담당경력 10년 이상의 교사1인으로 구성된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구성 팀에 의해 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의 주의집중 시간을 감안해 주 1회 40분씩 8회기로 진행되었다(부록 1).

2) 공격성 검사지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Buss와 Durkee(1975)의 적의성검사의 일부로 된 '공격성 진단검사' 와 황정규(1964)의 공격욕구 검사, 허일범(1997) 및 최만복(2007), 한영미(2009)가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해 사용했다. 1차 설문지는 용서상담프로그램 개발 구성팀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설문지를 인근 1개 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한 후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제외하고 1차 설문지를 수정해 2차 설문지를 작성했다.

본 설문지의 타당도는 2차 설문지를 통계전문가에게 의뢰해 타당도를 검증 받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검사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 Likert식 4단계 평가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본 검사의 공격성 신뢰도는 .967이었다.

3) 대인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검사지는 Guerney (1977)의 관계변화 척도를 문선모(1980)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강숙영(2003)에 의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언어로 사용된 총 25문항의 대인관계 검사지이다.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까지 Likert 척도 5단계 평가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강숙영(2003)에 의한 신뢰도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58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2) t-test로 두 집단의 사전, 중재직후, 4주후의 공격성, 대인관계 평균을 구하였다.

3) 두 집단의 사전 공격성, 대인관계 척도에 의한 동질성 검사는 Mann 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4) 가설 검증을 위한 두 집단의 사후, 추후 공격성, 대인관계척도 변화는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학생 구성은 모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으로 동일하며 주거형태, 형제자매 수, 성격 발달에 영향 요인으로 생각되는 형제순위, 미운존재의 유무, 미운대상, 부모 맞벌이의 일반적 특성에서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표 1).

2. 대상자의 중재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실험 처치에 앞서 Mann-Whitney U 검증결과 교육군, 비교육군에 있어 공격성 영역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유의미한 순위 차이가 있어 두 집단은 이질적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육군 아동에 비해 교육군 아동에 있어 높은 공격성향과 낮은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고 있다(표 2).

교육군, 비교육군의 공격성 평균은 각 3.32±0.29, 1.55±0.31, 대인관계 평균은 2.79±0.65, 3.86±0.39로 두 집단은 역시 이질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p<0.001$) (표 3).

3.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 가설 검증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공격성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교육군 9명 전원에서 유의미한 공격성 점수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비교육군에서 1명의 학생을 제외한 8명의 공격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p<0.05$) (표 4), 두 집단의 공격성 평균 점수는 교육군, 비교육군 각 3.32±0.29, 1.55±0.31에서 2.25±0.30, 2.00±0.13으로 교육군에 있어 유의미한 공격성 점수 감소가 있고, 비교육군에서 유의미한 공격성 점수 증가가 있어($p<0.05$)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5).

가설2.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교육 직후 비교육군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가 높아 질

표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 분		대조군 (%)	실험군 (%)	전체 (%)	χ^2
주거형태	아파트	5 (55.6)	7 (77.8)	12 (66.7)	.620
	주택	4 (44.4)	2 (22.2)	6 (33.3)	
형제자매 수	1	1 (11.1)	3 (33.3)	4 (22.2)	1.400
	2	6 (66.7)	4 (44.4)	10 (55.6)	
	3	2 (22.2)	2 (22.2)	4 (22.2)	
형제서열	1	4 (44.4)	2 (22.2)	6 (33.3)	1.111
	2	4 (44.4)	5 (55.6)	9 (50.0)	
	3	1 (11.1)	2 (22.2)	3 (16.7)	
미운존재	있다	5 (55.6)	4 (44.4)	9 (50.0)	1.000
	없다	4 (44.4)	5 (55.6)	9 (50.0)	
미운대상	부모님	1 (20.0)	1 (25.0)	2 (22.2)	.225
	친구	2 (40.0)	1 (25.0)	3 (33.3)	
	선생님	2 (40.0)	2 (50.0)	4 (44.4)	
	소계	5 (100.0)	4 (100.0)	9 (100.0)	
부모맞벌이	맞벌이	3 (33.3)	4 (44.4)	7 (38.9)	1.000
	맞벌이 아님	6 (66.7)	5 (55.6)	11 (61.1)	
합 계		9 (100.0)	9 (100.0)	18 (100.0)	

$p<0.05$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표 2. 공격성 및 대인관계 집단 간 사전 동질성

항목	하위 요소	그룹	N	Mean Rank	Sum of Ranks	Mann-Whitney U	Z	p
공격성	신체적	비교육군	9	5.11	46.00	1.000	-3.512	.000
		교육군	9	13.89	125.00			
	언어적	비교육군	9	5.06	45.50	.500	-3.582	.000
		교육군	9	13.94	125.50			
	우회적	비교육군	9	5.00	45.00	.000	-3.599	.000
		교육군	9	14.00	126.00			
	부정성	비교육군	9	5.17	46.50	1.500	-3.456	.000
		교육군	9	13.83	124.50			
	흥분성	비교육군	9	5.00	45.00	.000	-3.593	.000
		교육군	9	14.00	126.00			
	전체	비교육군	9	5.00	45.00	.000	-3.576	.000
		교육군	9	14.00	126.00			
대인 관계	만족감	비교육군	9	14.00	126.00	.000	-3.597	.000
		교육군	9	5.00	45.00			
	의사소통	비교육군	9	13.00	117.00	9.000	-2.802	.004
		교육군	9	6.00	54.00			
	신뢰감	비교육군	9	12.61	113.50	12.500	-2.593	.011
		교육군	9	6.39	57.50			
	친근감	비교육군	9	13.67	123.00	3.000	-3.346	.000
		교육군	9	5.33	48.00			
	민감성	비교육군	9	11.67	105.00	21.000	-1.750	.094
		교육군	9	7.33	66.00			
	개방성	비교육군	9	11.61	104.50	21.500	-1.686	.094
		교육군	9	7.39	66.50			
	이해성	비교육군	9	12.11	109.00	17.000	-2.094	.040
		교육군	9	6.89	62.00			
	전체	비교육군	9	13.11	118.00	8.000	-2.870	.003
		교육군	9	5.89	53.00			

$p<0.05$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교육군 9명, 비교육군 8명의 대인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고($p<0.01$) (표 4), 두 집단의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교육군, 비교육군 각 2.79±0.65, 3.86±0.39에서 3.81±0.33 4.27±0.20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점수 증가가 관찰되어($p<0.05$) 가설 2는 기각 되었다(표 5).

가설3. '집단용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4주후에도 공격성 점수가 낮게 유지 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교육군의 경우 9명의 학생 모두가 공격성 점수가 낮아 졌으며, 비교육군은 8명의 점수 상승, 1명의 점수 하락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표 6).

또한, 두 집단의 공격성 평균은 교육군, 비교육군 각 3.32±0.29, 1.55±0.31에서 1.96±0.19, 2.27±0.35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어($p<0.05$) (표 7), 중재 4주 후 교육군의 공격성이 비교육군보다 낮게 유지 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 되었다.

가설 4.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은 비교육군에 비해 4주후에도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유지 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교육군 9명은 대인관계 5개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점수 상승이 있었고($p<0.05$), 비교육군의 경우 4명의 점수 상승, 5명의 점수 하락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 (표 6),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교육군, 비교육군에서 각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표. 3 교육군과 비교육군 영역별 평균 점수

영역	하위영역	Mean±S.D		t	p
		비교육군	교육군		
공격성	신체적	1.56±0.44	3.17±0.34	−8.695***	0.000
	언어적	1.52±0.44	3.37±0.42	−9.054***	0.000
	우회적	1.47±0.26	3.38±0.25	−15.636***	0.000
	부정성	1.67±0.53	3.31±0.48	−6.901***	0.000
	흥분성	1.56±0.32	3.38±0.29	−12.621***	0.000
	전 체	1.55±0.31	3.32±0.29	−12.619***	0.000
대인관계	만족감	3.78±0.48	2.19±0.69	5.651***	0.000
	의사소통	4.11±0.49	2.86±0.78	4.074***	0.001
	신뢰감	3.48±0.29	2.59±0.81	3.086**	0.007
	친근감	3.96±0.48	2.59±0.60	5.354***	0.000
	민감성	4.22±0.57	3.33±1.09	2.172	0.051
	개방성	3.64±0.73	2.98±0.85	1.787	0.093
	이해성	3.81±0.43	2.94±0.88	2.634*	0.022
	전 체	3.86±0.39	2.79±0.65	4.232***	0.001

*p<0.05, **p<0.01, ***p<0.001

표 4. 중재 직후 공격성 및 대인관계 변화

처치직후 (Ranks)−사전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Z	p
공격성	교육군	Negative Ranks	9	5.00	45.00	−2.666	.008
		Positive Ranks	0	.00	.00		
		Ties	0				
	비교육군	Negative Ranks	1	2.00	2.00	−2.429	.015
		Positive Ranks	8	5.38	43.00		
		Ties	0				
대인관계	교육군	Negative Ranks	0	.00	.00	−2.666	.008
		Positive Ranks	9	5.00	45.00		
		Ties	0				
	비교육군	Negative Ranks	1	3.00	3.00	−2.312	.021
		Positive Ranks	8	5.25	42.00		
		Ties	0				

p<0.05

표 5. 중재 직후 공격성 및 대인관계 평균 변화

영역	Mean±S.D		t	p
	교육군	비교육군		
공격성	2.25±0.30	2.00±0.13	−2.288*	0.036
대인관계	3.81±0.33	4.27±0.20	3.584**	0.003

*p<0.05, **p<0.01

2.79±0.65, 3.86±0.39에서 4.11±0.49, 3.85±0.47로 교육군에서 유의미한 대인관계 점수 차이가 나타나(p<0.05) (표 7), 중재 4주 후 교육군의 대인관계 점수가 비교육군에 비해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표 6. 4주 후 공격성 및 대인관계 변화

사전 (Ranks)-4주후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Z	p
공격성	교육군	Negative Ranks	9	5.00	45.00	-2.670	.008
		Positive Ranks	0	.00	.00		
		Ties	0				
	비교육군	Negative Ranks	1	2.00	2.00	-2.429	.015
		Positive Ranks	8	5.38	43.00		
		Ties	0				
대인관계	교육군	Negative Ranks	0	.00	.00	-2.666	.008
		Positive Ranks	9	5.00	45.00		
		Ties	0				
	비교육군	Negative Ranks	4	5.38	21.50	-.120	.904
		Positive Ranks	5	4.70	23.50		
		Ties	0				

표 7. 4주 후 공격성 및 대인관계 평균 변화

영역	Mean±S.D		t	p
	교육군	비교육군		
공격성	1.96±0.19	2.27±0.35	-2.350	0.036
대인관계	4.11±0.49	3.85±0.47	4.074	0.001

$p<0.05$

위해 실시되었으며 학기말과 달리 학기 초 새로운 학년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담임교사, 새로운 반 친구들 등 인적 자원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교실, 변화한 교육과정 등 물리적, 외적 환경에 의해 학생들이 심리적 긴장감이 갈등을 일으켜 공격성이 잘 표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3~4월에 예방적 차원의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용서 상담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교육군, 비교육군에서 공격성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군 9명 학생의 공격성 감소, 비교육군 8명의 공격성 점수 상승, 1명의 하락으로 유의미한 공격성 점수 상승이 관찰되었고($p<0.05$), 두 집단의 공격성 평균은 교육군, 비교육군 각 3.32±0.29, 1.55±0.31에서 2.25±0.30, 2.00±0.13으로 교육군의 공격성 감소, 비교육군의 공격성 점수 증가가 관찰되어($p<0.05$)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는 용서 상담프로그램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인 Al-Mabuk (1995), Gassin (1995), Coyle와 Enright (1997), 김광수(1999), 노승수(1999), 이현희(2005), 최만복(2007), 박인희(2001), 정지윤(2005), 한영미(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중재 전 두 집단은 동질성 검사에서 비교육군이 교육군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가 높고 공격성이 낮은 이질적 집단이었으며 이는 상담을 지원한 교육군 9명의 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육군 학생의 변화에 대한 동기도 공격성 감소 및 대인관계 점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인지 기능이 성인처럼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공격성을 인지하기 힘들뿐더러 설령 인지 했더라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집단 내에서 적절한 공격성 표출법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적었거나 사회장면에서 적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공격성이 표출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에서 집단용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것과 누군가로부터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용서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나타났고 이러한 인지적 재구조화 과정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을 통해 공격성이 감소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집단용서 상담프로그램 적용 직후의 대인관계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군 9명, 비교육군 8명의 대인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고($p<0.05$), 두 집단의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교육군, 비교육군 각 2.79±0.65, 3.86±0.39에서 3.81±0.33 4.27±0.20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점수 증가가 관찰되어($p<0.05$) 가설 2는 기각 되었다.

교육군 아동들의 경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타인을 용서함과 동시에 자신 속의 분노나 공격성이 예전처럼 급작스럽게 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활용한 것이 일상생활 현장에서도 친구들과 갈등을 덜 일으키게 되었고 변화된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료나 다른 사람들도 대인관계에서 예전과 다른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 것이 대인관계 양상을 좀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질적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요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예전보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친구가 늘었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가 좀 더 편안해 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본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대인관계 향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군 아동은 갈등 상황에 노출 될 때 공격성을 드러내기보다 용서를 선택함으로 무 패적 갈등해소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교육군 아동의 대인관계 점수 상승은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음주, 흡연 및 정신건강 관리 부분을 수업하면서 교육군, 비교육군 학생 공히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위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 및 우울한 기분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적절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수업한 시기가 용서상담프로그램 직후 인 것을 감안하면 보건수업에서 실시한 Life-skill교육이 대조군의 대인관계 점수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여 진다.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에 의거 학습한 내용의 80%가 한 달 후 소실되는 것에 착안해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 종료 한 달 후 교육군. 비교육군 두 집단의 공격성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교육군 9명의 공격성 점수가 낮아 졌고, 비교육군 8명의 점수 상승, 1명의 점수 하락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고($p<0.05$), 두 집단 평균 비교 시 교육군, 비교육군에서 각 3.32±0.29, 1.55±0.3에서 1.96±0.19, 2.27±0.35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어($p<0.05$), 4주 후 교육군의 공격성 점수가 비교육군에 비해 낮게 유지 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는 용서교육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용서상담프로그램 참가 아동들끼리 서로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시 집단상담자를 찾아와 상담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아동들의 긍정적 태도에 또래 친구들이 적대감을 덜 표현하고 받아들여 준 것이 아동들의 공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또한, 30일 후에도 아동의 공격성 점수가 낮게 유지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용서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히 인지적인 것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넘어서 행동태도를 변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중재 4주후 대인관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군 9명은 대인관계 5개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점수 상승이 있었고($p<0.05$), 비교육군의 경우 4명의 점수 상승, 5명의 점수 하락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교육군, 비교육군에서 각 2.79±0.65, 3.86±0.39에서 4.11±0.49, 3.85±0.47로 교육군에서 유의미한 대인관계 점수 상승이 나타나($p<0.05$), 교육군의 대인관계 점수가 비교육군에 비해 4주 후에도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 되었다.

이는 공격성 행동이 줄어들자 학교생활에서 또래 집단과의 갈등이 덜 표출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칭찬의 말들을 듣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학교 환경이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그전까지 부정적으로 인지했던 상황을 좀 덜 불편하게 인지한 것이 대인관계 점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대인관계의 경우 지식적인 것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감안할 때 집단용서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타인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이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 life-skill을 가르치고 수행하게 한 것도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유지된 요인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1개 도시 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수가 적어 비모수적 통계 기법을 주로 사용해 분석했으므로 표본 자료로 모 수치를 추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모든 연구에 일반화시키기는 힘든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직후 뿐 아니라 프로그램실시 한 달 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집단용서상담프로그램이 인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장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life-skill 측면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계발한 것이 대상 아동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격성 감소 방법과 대인관계 유지 방법을 습득한 대상자들의 변화된 갈등 해결 방법이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번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 본 연구에서는 표본 대상자 수가 일반화 할 만큼 많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를 실시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만 6세부터 만11세까지 발달 단계가 다른 대상자들이 존재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 중학년(3~4), 고학년(5~6) 학년을 대상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적용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 아동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비행,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예방적 차원의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적용 할 것을 제언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집단용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D시 소재 6학년 아동 중 집단용서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 9명을 교육군, 나머지 학생 중 무선할당방식으로 9명의 비교육군으로 선정해 교육군 아동에게 8차시의 집단 용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적용 직후, 적용 4주후의 대인관계 및 공격성 점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spss win 18.0으로 분석되었으며 t-test, Mann-Whitney U, Fisher's Exact test, Wilcoxon signed-rank test 통계 기법을 활용했다.

용서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후 교육군의 공격성 감소와 비교육군의 공격성 점수 증가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고($p<0.05$), 두 집단 모두에서 대인관계 점수의 상승이 있었다($p<0.05$).

용서상담 프로그램 실시 4주후 교육군 아동이 비교육군 아동에 비해 공격성 감소와 대인관계 점수 상승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p<0.05$). Yalom (2010)이 집단 치료의 치료적 요소 중 나도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타주의'와 인간은 누구나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보편성'을 집단 치료 요인으로 본 것처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질집단 아동들이 서로를 관찰하고 모델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집단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Life- skill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이 아동들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문헌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실태 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2010;2-5

Irvind D. Yalom, Molyn Leszcz. 집단정신치료의 이론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과 실제. 하나의학사, 서울, 2008;25-32
권선귀. 인지행동수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해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광역시: 대구교육대학교; 2004
고요나. 용서교육이 초등학교 아동의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광역시: 광주교육대학교; 2008
김광수, 하요상. 용서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006;20(4); 909-930
김귀연. 아동의 또래 부적응에 대한 부모요인 및 또래 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석사학위논문].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2004
김옥배. 용서교육프로그램이 기독청년의 용서수준과 영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라북도: 전주대학교; 2006
박인희. 용서교육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용서 수준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2001
송옥선. 초등학생용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석사학위논문].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2009
이범수. 아동 용서프로그램이 용서수준, 자아 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전라북도: 전주대학교; 2009
이정희. 공격성 유형과 갈등 상황 및 관계 유형이 아동의 또래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기도 : 아주대학교; 2002
이현희. 용서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서울특별시: 서울교육대학교; 2005
정지윤. 용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용서 정도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서울특별시: 서울교육대학교; 2005
윤영숙.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목회자 부인들의 용서 분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2005
이은경. 영화를 활용한 용서교육프로그램이 기독 청소년의 용서,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부산광역시: 경성대학교; 2010
장수진. 용서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충청남도: 공주대학교;2009
장화수.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용서, 불안, 분노 및 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2002
최만복. 용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2007
한상규. Enright의 용서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2006
한영미. 용서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광주광역시: 광주교육대학교;2009
허일범. 인간관계개선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1997
Al-Mabuk, R. H, Enright, R. D & Cardis, P. A. Forgiveness education with parentally love-deprived college student. Journal of Molar Education 1995; 24:427-443
Bergin, A. E. Three contributions of a spiritual perspective to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Counseling and Values, 1998;33:21-31
Brandsma, J. M. Forgiveness: A dynamic, theological, and therapeutic analysis. Pastoral Psychology, 1982; 31:40-50
Cassidy, J & Asher, S. R. Loneless and peer relation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94:63: 350-365
Coley, D. L & Enright, R. D.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97; 65(6):1042-1046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Helping clients forgiv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2000
Farrington, D. P.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989;4(2):97-100
Frank D. Fincham, F. Giorgiapaleari. Camillo regalia. Forgiveness in marriage :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 &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 2002;9:27-37
Freedman, S. R & Knupp, A. The impact of forgiveness on adolescent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003;39: 135-165
Gassin, E. A.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ebl, J. H. & Enright, R. D.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1993; 30: 658-667
Spielberger, C. D, Russel, S, Crane, R. J, Jacobs, G.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

Scale. Hillsdale, New jersey. 1983.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C.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995;18:641-655

부록 1. 집단용서상담 프로그램

회기	단계	제목	회기목표	주요 활동
1	개방수준 (노출)	나를 소개 합니다	· 적절한 자기 노출로 방어를 줄이며 집단 구성원들의 응집성을 키운다.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 알기 -애칭 짓기
2	개방수준 (노출)	감정에 이름을 붙여요	· 현재 자신의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임으로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내 감정을 색깔로 나타내고 이름 붙이기 -붙여진 이름의 적절성 파악하기 -소감 나누기를 통한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3	개방수준 (노출)	친구의 마음을 읽어요	·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집단원의 현재 감정을 파악해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내가 이름 붙인 친구의 감정을 친구에게 확인해 봄으로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친구 표정 관찰하기 -친구 감정 단어로 나타내기 -소감 나누기를 통한 타인 이해하기
4	결정수준 (결심)	나도 누군가에게는	· 제시된 상황의 역할극을 실시함으로서 나도 부지불식간 타인에게 잘못했을 수 있음을 느끼게 하여 문제해결 전략으로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에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경험함으로서 타인의 입장 배려하는 방법 배우기 -집단원의 역할극 관찰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 해결 하는 방법 발견하기
5	작업수준 (활동)	부치지 못한 편지 완성하기	· 평소 용서하기 힘들었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에게 용서 편지를 적음으로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용서하기 힘들었던 대상자에게 용서 편지 쓰기 -집단 소감 나누기
6	작업수준 (활동)	00야! 미안해	· 평소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용서를 청했어야 할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편지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함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다.	-용서 받을 대상자에게 편지나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함으로서 죄책감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계기가 됨 -집단 소감 나누기
7	심화수준 (결과)	이제 당신을 용서 합니다.	· 추상적인 용서 개념을 구체화하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 선물을 만들 수 있다.	-용서 선물 만들기 -집단 소감 나누기
8	심화수준 (결과)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한 자신을 들여다보며 지금의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한다.	-변화한 나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집단원 서로에게 격려 편지쓰기

계명대학교 | IP: 114.71.5.213 | Accessed 2016/07/05 15:47(KST)